

## 문학 수업과 읽기 교재

송 휘 재  
(건국대학교)

---

**Song, Hwichae (2003). Literature course and supplementary readers.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6, 45-65.**

The course is composed of the teacher, the student and the teaching materials. But the function of supplementary readers as teaching materials for German literature has been not widely discussed and approved in Korea. In the first part of my paper I will describe existing supplementary readers which are almost the annotated readers. In the second part I will explain to three aspects for the production of the supplementary readers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 1) The aspect of literature: it is important for the students to do experience the literary forms which are various and original. 2) The aspect of language: words and sentence structures must be neither excessively easy nor excessively difficult. 3) The aspect of reading process: the understanding process of literary texts should be more effectively used. The present paper attempts to convey the aesthetic and pedagogical values of supplementary readers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

---

### 1. 시작하는 말

우리나라에서 독일어가 가르쳐진지 한 세기가 지났고, 대학에서 독어독문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것도 반세기가 지났다. 그동안 독일어 수업을 위한 교재와 독문학 수업을 위한 교재들이 얼마나 많이 발간되었는지 통계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난 20여 년간의 대략적인 경우에만도 수많은 교재들이 발간되었음을 우리는 도서관의 장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독일어 교재의 경우에 독일어권에서 발

간된 교재에서부터 우리나라 독어독문학자들이 집필해서 출판사를 통해 발간되는 교재에서 더 나아가 독어독문학 관련학과가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독일어 교재를 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상응해서 그 내용과 형식도 다양하다. 반면 독일 문학 수업을 위한 교재로는 대부분 읽기 교재로서 소위 ‘주해시리즈’의 형태로 많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교재는 현재 대부분 절판되어, 다만 재고분량만이 대형서점의 서가에 진열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오늘의 독어독문학과 의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새로운 읽기 교재는 최근에 출간되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 공부할 당시 이 교재들을 가지고 공부한 경험이 있는 필자는 ‘왜 이 교재들이 독일 문학 수업의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들 교재에 대해서 외국어 문학 수업 교재로서의 유용성이란 틀을 가지고 분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외국어 문학 교수법 내지 읽기 교수법적 관점에서 새로운 읽기 교재의 구성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출간되었던 독일 문학 수업을 위한 읽기 교재들 중에서 필자가 참고한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시리즈’ 형태

- 1) 범한 독일문학 시리즈, 범한서적
- 2) 범우 독일문학 주해시리즈, 범우사
- 3) 삼영 독일문학 주해시리즈, 삼영사
- 4) 독어학습문고 독한대역 명작소설, 다락원

#### 단행본

- 5) 독일단편소설, 일신사
- 6) Der zerbrochne Krug, 학연사

이들 읽기 교재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은 본 논문의 뒤에 부록으로 첨부될 것이다. 독일 문학의 수용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작가와 작품 목록도 연구의 관심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읽기 교재의 구성에 초점을 국한시켜 간략하게 소개해보기로 한다.

## 2. 기존의 읽기 교재

### 1) <범한 독일문학 시리즈>

시리즈의 형태로 제일 먼저 출간(1977)되었던 <범한>은 한국 독어독문학회가 기획했다. 이 시리즈는 독어독문학과와 “교재난을 타개”하고 “독문학에 흥미를 갖고 있는 문학과들도 주해의 도움으로 원서를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모두 28권이 발간되었다. 구성적 특징은 텍스트에 이어 뒷부분에 주해자의 해설과 주해(단어설명)가 제공되었다. 주해의 방법은 쪽수와 함께 행수를 제시하고 있다.

### 2) <범우 독일문학 주해시리즈>

<범우> 역시 시리즈의 형태로 1984년부터 모두 14권이 발간되었다. 이 시리즈는 <범한>과는 다르게 한국 독어독문학회가 편집한 것이 아니다. 서문에는 ‘범우 독문학 주해 시리즈 편찬위원회’가 80년대 초 독문학과와 증설이후 “외래문화의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수용”을 위한 “교재”로 이 시리즈가 기획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구성적인 특징으로는 왼쪽 면에는 텍스트가 있으며, ‘주해면’이라 칭한 오른쪽 면 하단에는 단어설명이 행의 수와 함께 제시되었다. 오른쪽 면 상단의 여백은 학습자의 노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헐적으로 작품이나 작가와 연관된 그림 또는 사진이 삽입된 이 읽기 교재는 뒷부분에 주해자의 작품해설, 작가 연보 및 참고자료 목록이 첨부되어있다.

### 3) <삼영 독일문학 주해총서>

역시 시리즈의 형태로 1986년부터 발간된 <삼영>은 다시 <범한>과 마찬가지로 한국 독어독문학회가 편집위원회를 맡아 모두 20권을 발간했다. (제21권은 근간으로 고지되었지만 발행되지 않은 것 같다.) 서문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이 총서의 발간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70여개로 늘어난 독어독문학과와 교재선택의 어려움을 덜고자 한국 독어독문학회가 “각 대학의 교과과정을 반영하고, 문학사적인 평가를 참작”하여 주해총서를 간행했다. 그러나 이 총서는 강의교재뿐 아니라 “혼자서 읽어 나갈” 수도 있도록 만들었다. 작품의 선택은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읽어야 할 작품들을 우선 선정”했고, 주해는 “그 작품을 강의한 경험이 있거나 전공분야로 보아 연구한 경험이 있는 회원들”이 맡았다. 서문에는 구성원칙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단어설명은 “사전의 낱말풀이로 가려지는 문구보다는 전체 문맥에서 가지는 뜻으로 보아 필요한 부분을 주해”함으로써 “읽기 과정에서 문학성도 (...) 배려”했다. 단어설명은 각주의 형식으로 제시되었고, 뒷부분에는 주해자의 작품해설, 작가연보 및 참고문헌이 첨부되었다.

#### 4) <독어학습문고 독한대역 명작소설>

<독한대역>은 1989년 모두 5권이 출간되었다. 한 사람에 의해 5권이 모두 번역되었다. 역자는 ‘역자의 말’에서 이 읽기 교재의 기능을 “독일어의 독해력”을 기르고 학습자가 “원어를 직접 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번역은 “원문을 직접 이해하는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직역이 시도되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원텍스트와 번역이 각각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을 차지하고 있다. 단어설명은 번역된 양쪽 면의 하단에 각주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림이나 사진은 전혀 없으며, 번역자의 작가와 작품설명은 텍스트에 앞서 주어졌다. 이와 같은 대역의 형식은 교재의 특성상 수업용이기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5) <독일단편소설>

모두 12편의 단편소설이 시대사조에 따라 - 티이크 L. Tieck에서부터 토마스 만 Th. Mann까지 - 실려 있는 이 교재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텍스트의 이해를 돕는 단어 설명이 영어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편집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미국 대학의 독문학 전공을 위해 제작된 교재를 참고했기 때문이다. 작가와 작품 설명은 각 작품의 시작 부분에 해당되는 페이지의 하단에 독일어로 제시되었고, 단어 설명은 각 쪽의 텍스트 옆 자리에 해당 단어가 들어있는 행에 맞추어 각주 번호형태로 주어졌다. 교재의 뒷부분에는 각 작품에 대한 참고문헌이 소개되었다.

#### 6) <Der zerbrochne Krug>

1992년에 발행된 이 읽기 교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교재와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편집자가 한국인과 독일인 각각 2명씩 모두 4명이다. 머리말에서 편집자들은 이 읽기 교재의 발간 목적을 독문법을 배운 학습자가 “독일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문법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적절한 교재”의 필요성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구성

원칙은 첫째, “텍스트의 이해뿐만 아니라 문법 구조의 이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둘째, “텍스트 이해의 문제”가 있다. 이때 문제는 내용적인 쉬운 질문부터 “한독 문화교류적인 확장”에 이르도록 구성했다. 또한 강의 교재로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풀어나가면서 연습”하도록 구성했다. 구성적인 특징으로는 텍스트에 앞서 ‘머리말’과 ‘작가와 작품소개’는 국문과 독문 두 언어로, 외국어 학습자를 위한 작가에 대한 참고문헌과 작품의 줄거리는 독문으로 제시되었다. 단어 설명은 텍스트의 하단에 행의 숫자나 각주 번호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뒷부분에는 독문으로 된 문제와 해답이 첨부되었는데, 문제는 문법, 텍스트의 이해, 작품의 해석, 작품의 요지, 문화교류적인 문제, 또다시 텍스트의 이해, 작품의 해석에 대한 과제문제, 텍스트 주요부분에 대한 이해 문제 등 단계별(L, M, S)로 주어졌다. 가장 교재답게 구성된 이 읽기 교재는 편집자들이 ‘머리말’에서 “시리즈의 형식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지만 이루지 못한 듯하다.

### 3. 새로운 읽기 교재의 구성을 위한 제 관점

외국어 문학수업이라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 활용될 읽기 교재의 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점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텍스트의 난이도이다. 다양한 학습자들의 언어수준을 고려하여 어떤 텍스트가 읽기 교재로 선택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이다.

텍스트의 난이도와 관련해서 외국어 문학 교수법 분야에서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교재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아직까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외국어 읽기 교수법에서 언어교재의 텍스트 내지 실용텍스트 Sachtexkte의 난이도를 분명하게 하려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sup>1)</sup> 이 연구들은 보편적 의미에 있어서의 외국어 텍스트의 난이도 결정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다루면서,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텍스트 난이도의 기준을 언급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소홀히 되고 있다. 그것은 외국어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언어교재나 실용텍스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학 텍스트도 읽는다는 사실이다. 외국어 교수법에서 언어교재나

1) Vgl. Westhoff 1997 und Wolff 1984.

실용텍스트의 난이도는 이미 학습과정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연구되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문학 텍스트의 난이도는 사실 교사나 학습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이때 난이도 기준의 근거가 된 것은 주로 언어적 측면으로 예를 들면 문법적 구조와 어휘였다. 그리고 몇 가지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내용이나 주제와 관련된 기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어 문학 텍스트의 읽기 교재 편찬자들은 외국어 독자가 읽을 때에 부딪힐 수 있는 언어적 어려움을 스스로 판단해서 그에 따른 도움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외국어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에 독자가 느끼는 이해의 어려움은 언어적 요인만은 아니다.<sup>2)</sup> 외국어 독자는 모국어 독자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외국어 문학 읽기 교재가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어 문학 읽기 교재의 구성을 크게 세 가지 관점 - 문학적, 언어적, 읽기 교수법적 관점 - 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 3.1 문학적 관점

외국어 문학 읽기 교재를 위해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문학적 관점이다. 이는 “문학 텍스트의 차별성 *Differenziertheit literarischer Texte*”이라는 문학 텍스트의 “다양성 *Vielgestaltigkeit*”과 “문학성 *Literarizität*”과 관련이 있다.<sup>3)</sup> 다시 말해 다양한 문학 형식과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문학 교수법의 논의에서 텍스트를 선택할 때 원칙적으로 “문학이라는 대상의 다양성 *Vielfalt des Gegenstandes Literatur*”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적어도 일치되고 있다.<sup>4)</sup> 이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문학 텍스트를 적절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구는 물론 텍스트 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해 외국어 문학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다루고 각

2) Vgl. 송희재 2002.

3) Löschmann/Schröder 1984, S. 24

4) Vgl. Esselborn 1994: hier S. 280.

장르들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접하도록 하려는 목표는 모든 텍스트의 종류들이 수업에서 똑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떤 텍스트 종류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고전 텍스트보다는 동시대 텍스트가 활용되어야 하는가?’ 와 같이 텍스트 선택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교수법적 관점으로 분명하게 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sup>5)</sup> 그래서 외국어 교수법 논의에서 문학수업을 위해 어떤 문학 장르가 특별히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내지 독자 중심의 외국어 문학 교수법에서는 짧은 텍스트가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보다 긴 텍스트를 다루는 것이 여러 면에서 어려운 학교의 실제적 조건들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동기적인 관점 하에서도 많은 문학교수법자들은 외국어 수업에서 단편소설들을 사용할 것에 동조한다.

Begründet wird dies nicht nur mit den Bedingungen schulischer Praxis, die eine Beschäftigung mit längeren Texten vielfach erschweren. Gerade auch unter motivationalen Aspekten plädieren viele Literaturdidaktiker für den Einsatz von Kurzgeschichten im Fremdsprachenunterricht.<sup>6)</sup>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교수법적 관점에서 일치된 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짧고 내용적으로 간결한 텍스트가 긴 텍스트보다 다양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기대하는데 더 적합하다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미의 개방성과 관련해서 시(詩)가 산문보다 학생들의 의견과 상상력을 이끌어내고 이해시키는 과정 속에서 창조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떤 텍스트 내지 어떤 장르가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는 오히려 교수자가 추구하는 일련의 학습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수자는 학습목표에 일치하고 학습자들의 관심과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늘 갖고 있다. 문예학적 관점에서 코스크 Kosok는 이미 1979년에 외국어 문학 수업을 위한 읽기 교재의

5) Vgl. Glaap 1995, S. 153ff.

6) Benz 1990, S. 84f.

선택이 “우연성에서 벗어나고, 진부성의 부담을 벗어나며, 오류를 방지할 von Zufälligkeiten befreit, von Banalitäten entlastet, vor Mißgriff bewahrt”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기준을 제안했다.<sup>7)</sup>

- 복합성
- 보편성
- 독창성
- 시의성
- 묘사의 완결성

‘복합성 Komplexität’이란 문학 작품이 학습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주제와 내용에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도 해당된다. 코스크는 ‘보편성 Universalität’의 관점으로 그러한 경험들이 현대를 살고 있는 학습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 ‘독창성 Originalität’이란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의 역사적 차원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발전의 시작 Beginn einer Entwicklung”<sup>8)</sup>을 알 수 있는 작품들을 말한다. ‘시의성 Aktualität’의 관점 하에서는 학습자가 문학 작품에서 현재와 관련하여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 즉 학습자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묘사의 완결성 Geschlossenheit der Darstellung’의 기준은 형식과 주제의 상호의존성으로, 이는 어떤 작품에서 묘사의 형식이 곧 내용의 기능이어서 그 작품의 해석이 형식의 관찰에 달려있음을 말한다.

읽기 교재를 구성하는데 문학적 관점 하에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텍스트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즉 원텍스트 Originaltexte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언어적으로 재구성된 텍스트 sprachlich aufbereitete Texte’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도 수십 년 동안 외국어 문학 교수법의 논의에서 일치된 답이 없었다. ‘언어적으로 재구성된 텍스트’의 경

7) Vgl. Kosok 1979. hier S. 27

8) A.a.O. S. 22



우 어휘의 수를 줄이고 문법적 구조를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외국어 독자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는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출 수 있다.<sup>9)</sup> 이 밖에도 텍스트의 읽기를 자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는 문법적인 문제와 모르는 단어를 해결해 주는데 교수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원텍스트를 단순화하고 축약하는 ‘개작형태 Adaptionsform’는 분명히 교수법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편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예를 들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 인물들의 성격, 서술시점, 언어적 상징, 방언이나 사회적으로 독특한 점 등이 ‘언어적으로 재구성된 텍스트’에서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학습자들이 문학적이고 심미적인 기능을 외국어 문학 텍스트에서도 인식할 수 있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들이 ‘언어적으로 재구성된 텍스트’ 보다는 원텍스트로 읽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다.<sup>10)</sup> 모르는 단어와 문법적 구조를 소화해내는 것도 외국어 문학 수업의 읽기 교수법적 목표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늘 쉬운 텍스트만 다루어서는 안 되고, 어려운 텍스트에도 적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3.2 언어적 관점

두 번째로 수업에서 학습자가 어떤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가는 텍스트의 언어적 난이도가 또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가는 그 텍스트의 난이도가 학습자를 위해 적당한가 아니면 적당하지

9) 예를 들면 독일 클레트 Klett 출판사의 ‘Eine Reihe für Deutschlernende: Lesen leicht gemacht’와 ‘Easy Readers: leicht zu lesen’이다. 전자의 경우 언어적 단순화를 두 단계인 ‘Gruppe A: leicht’와 ‘Gruppe B: mittelschwer’로 나누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더 세분화하여 네 단계인 ‘Gruppe A: Bücher mit 600 Wörtern’, ‘Gruppe B: Bücher mit 1200 Wörtern’, ‘Gruppe C: Bücher mit 1800 Wörtern’, ‘Gruppe D: Bücher mit 2400 Wörtern’으로 구분되어 있다.

10) 리이머 Riemer는 이러한 개작된 형태의 텍스트와 관련해서 예술작품은 그의 특성 자체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그의 자율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Vgl. Riemer 1994, S. 297f.

못한가에 달려있다. 이때 적당하지 못하다는 의미는 너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또한 너무 쉬운 것도 해당된다.<sup>11)</sup>

텍스트의 언어적 난이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독해의 가능성을 위한 연구에서 소위 'RE 목록(Reading-Easy-Index)'과 '독해력 목록(Lix, Lesbarkeitsindex)'과 같은 방법으로 텍스트의 난이도를 수학적 공식의 도움으로 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sup>12)</sup> 이와 같은 방법에서는 무엇보다도 텍스트의 복잡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주요변수인 어휘의 길이 Wortlänge와 문장의 길이 Satzlänge가 문제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특히 영미권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 방법은 두 가지 면에서 비판의 소리가 있다. 먼저 문장 길이는 분명히 텍스트의 문법적인 복잡성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그 문장 길이가 텍스트의 난이도를 결정하기 위한 유일한 판단기준으로서 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언어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짧은 문장들도 긴 문장 보다 훨씬 더 문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고 또 문장의 문법적 복잡성은 이해를 위해 요구되는 '해독 절차 Dekodierungsprozeduren'의 수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또한 위의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함으로써 텍스트의 난이도를 결정하는데 적당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네베 Nebe는 거부하고 있다.<sup>14)</sup>

- 독자의 이해력
- 이해의 과정을 결정하는 인지적 과정
- 텍스트 내용과 문장을 넘어선 텍스트 특성과 같은 텍스트와 관련된 인자들
- 텍스트가 수용될 수 있는 텍스트 외적인 독자 조건과 독서 조건

11) Vgl. Nebe 1991, S. 14

12) 'RE 목록'은 원래 영어를 위해 플레쉬 Flesch가 1948년에 개발했는데, 암슈타트 Amstad가 1978년 독일어를 위해 공식을 변형시켰다. 또 '독해력 목록'은 스웨덴의 스톡홀름 교육센터에서 스웨덴어를 위해 개발했으나 나중에 독일어에 응용되었다. Vgl. a.a.O. S. 15f. und Schier 1989, S. 227ff.

13) Vgl. Wolff 1985, S. 212

14) Nebe 1991, S. 16f.

이와 같은 판독가능성 공식들과 더불어서 텍스트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이 방법도 일반적으로 텍스트 표면의 양적인 특징에서 출발한다. 즉 텍스트에 나타나는 어휘를 그 해당 외국어 어휘의 ‘빈도수 목록 Häufigkeitsliste’ 내지 ‘결합가 목록 Wertigkeitsliste’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자가 텍스트의 어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학습자가 알지 못하는 단어의 수를 텍스트 전체의 단어 수에 연관시킴으로써 그 텍스트에서 이용된 어휘의 ‘경직성 Steilheit’, 즉 새 단어가 텍스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분을 알 수 있다. 또한 텍스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이한 단어들을 그 텍스트 전체의 단어 수에 연관시키면, 소위 ‘다양화 값 Diversifikationsquotient’이 생긴다.<sup>15)</sup> 텍스트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소위 ‘함부르크식 이해력 개념 Hamburger Verständlichkeitskonzept’이다.<sup>16)</sup> 이 방법은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텍스트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표로 구상되었다. 텍스트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차원들로서 다음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언급된다.

- 단순 vs. 복잡
- 체계적 구성 vs. 비체계성/무연관성
- 간결 vs. 장황

이 방법은 외국어 교재의 텍스트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연구에 응용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함부르크식 이해 개념’이 모든 종류의 텍스트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문학 텍스트인 경우, 텍스트 자체가 어렵다기 보다는 오히려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행위 Interaktion zwischen Text und Leser가 다소 어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문학 텍스트와 관련해서 언어적 관점 하에서는 ‘객관적 난

15) Vgl. Schier 1989, S. 227f.

16) Vgl. Ballstaedt u.a. 1981, S. 214

이도'와 더불어 '주관적 난이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sup>17)</sup> 이때 '주관적 난이도'란 독자, 즉 학습자의 조건에 따라 조사되고 목표그룹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어느 정도 적용할 준비가 되어있는 언어적-의사소통적 외국어 지식과 능력, 모국어와 외국어로 된 예술적 텍스트를 다루는데 어느 정도 분명한 능력과 숙련, 어느 정도 있는 지역학적 지식 및 경험의 보물이 수용을 쉽게도 어렵게도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심미적 감각, 구성된 주제와 문제에 대한 관심이 텍스트가 어렵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텍스트 선택을 위해 목표그룹의 조건을 실제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Mehr oder weniger anwendungsbereites sprachlich-kommunikatives Wissen und Können in der Fremdsprache, mehr oder weniger ausgeprägte Fähigkeiten und Fertigkeiten im Umgang mit künstlerisch geformten Texten in der Mutter- und Fremdsprache, ein mehr oder weniger vorhandener landeskundlicher Kenntnis- und Erfahrungsschatz erleichtern bzw. erschweren die Rezeption. Ebenso nehmen ästhetisches Empfinden, Interesse an den gestalteten Themen und Problemen Einfluß darauf, ob der Text für schwer gehalten wird. Von besonderer Bedeutung für die Textauswahl ist daher eine reale Einschätzung der Voraussetzungen einer Zielgruppe.<sup>18)</sup>

그럼으로써 텍스트의 난이도 결정은 단순하게 텍스트의 표면에 나타나는 양적인 면에만 얽매어서는 안 되고, 다음에서 언급될 읽기 교수법적 관점에서 텍스트를 이해할 때 전개되는 읽기의 인지적 과정과도 연계되어야만 한다.

### 3.3 읽기 교수법적 관점

읽기 교수법적 관점에서는 우선 문학 수업을 위한 읽기 교재의 간행 유형 editorische Typen이 언급되어야 한다. 읽기 교수법을 고려하여 쉬어 Schier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sup>19)</sup>

17) Löschmann/Schröder 1984, S. 25ff.

18) A.a.O. S. 28

- 텍스트를 발췌한 유형
- 텍스트를 단순화시킨 유형
- 텍스트를 주해한 유형

앞의 두 유형은 소위 ‘이차 저자 ein sekundärer Autor’라 할 수 있는 편집자에 의해 원텍스트를 내용적으로 내지 언어적으로 재구성한 ‘개작의 형태’이다. 그 중에서 전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의 중요한 부분만을 읽도록 발췌한 형태이다. 이 방법은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언어능력과 시간적 제약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발췌된 텍스트가 작품 전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방법론적인 필요성이 요구된다. 학습자가 전후 문맥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흥미를 잃을 수 있고 또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원텍스트를 내용뿐 아니라 언어적으로 단순화시킨 유형이다. 이때 내용의 단순화 inhaltliche Vereinfachungen란 텍스트의 내용을 학습자의 세계지식 Weltwissen과 연결시켜 개작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정신적인 성숙, 관심, 경험의 지평 등을 고려한 것이다. 언어의 단순화 sprachliche Vereinfachungen는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나 문장구조를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고려하여 보다 쉬운 단어, 관용구, 문장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유형의 ‘개작의 형태’는 텍스트의 양적, 질적 축소 내지 변화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방법론적이고 교수법적인 이론적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외국어 문학 수업을 위한 읽기 교재로서의 세 번째 유형인 ‘텍스트를 주해한 유형’은 앞의 두 경우와는 다르게 어떠한 형태로든 텍스트를 축소 내지 변화시키지 않는다. 다만 주해자가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작품의 전문 Ganzschrift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여러 도움이란 읽기 교수법적 의미에서의 ‘선행조직자 advance organizer’로서 단어 설명과 같은 언어적 도움뿐만 아니라, 문예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와 수업과 관련된 교수법적이고 방법론적인 정보들도 포함한다.<sup>20)</sup> 종종

19) Vgl. Schier 1989, S. 307

20) 텍스트의 이해를 돕는 ‘선행조직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단어 및 사항설명 Wort- und Sacherklärungen, 과제목록 Fragenkataloge,

외국어 수업에서 문학 작품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수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마치 실용텍스트 Sachtexpte처럼 다루어져 왔다.<sup>21)</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국어 수업은 크게 세 분야, 즉 언어 수업, 문학 수업, 지역사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sup>22)</sup> 심미적인 문학 작품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문학어 Literatursprache의 미적 효과를 이해하는 것도 학습목표의 하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쨌든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권고는 [...] 마치 외국어에는 언어적으로 객관적으로 복잡한 것은 없는 것처럼 학생을 나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시급하게 경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은, 우리가 그것을 삶의 복잡성이 반영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대략 상급과정 또는 중급과정 정도에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어수업의 첫 시간들에 속하는 것이다.

Die einzige Empfehlung, die ich allenfalls zu geben habe, läuft darauf hinaus, dringend davor zu warnen, [...] ihn (=Schüler) in der böse Täuschung zu wiegen, als ob es so etwas wie sprachlich und sachliche Komplexität in der Fremdsprache gar nicht gäbe. Die Literatur, wenn wir sie hier einmal als Erscheinungsform für die Komplexität des Lebens nehmen dürfen, gehört daher nicht etwa erst in die Oberstufe oder Mittelstufe, sondern sie gehört schon in die ersten Lektionen des Sprachunterrichts.<sup>23)</sup>

예술작품으로서의 문학의 완전성, 독창성, 불변화성을 고려한다면, 앞의 두 유형의 읽기 교재보다는 원텍스트를 다루는 세 번째 유형이 외국어 문학 수업을 위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다면 문제는 주해자에 의해 제시되는 텍스트의 이해를 돕는 도움들과 텍스트와의 연관성이다. 즉 주해자는 무엇보다도 학습자를 위해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또 어느 정도 제시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만 한다. 특히

---

그림 Abbildungen, 편집자의 서문 내지 후기 Vor- bzw. Nachwort, 참고자료 Literaturhinweise, 인용문 모음 Zitatensammlungen뿐만 아니라 교수자를 위한 수업제안 Unterrichtsvorschläge도 포함된다.

21) Vgl. Honnef-Becker 1993, hier S. 439

22) Vgl. 송휘재 2003, S. 481ff.

23) Weinrich 1983, S. 203

읽기 교수법적 관점에서 ‘선행조직자’는 단순히 외국어 텍스트를 걸림돌 없이 읽게 해주는 기능만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에서 창조적 생각을 동원시키고,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수용미학적인 의미에서의 ‘빈자리 Leerstellen’ 내지 ‘미정성의 자리 Unbestimmtheitsstellen’<sup>24)</sup>를 채우며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의 행위 지향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외국어) 문학 교수법은 수용미학의 영향 하에서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읽기 행위 Akt des Lesens’에 의해 언제나 새롭게 의미가 생겨나는 텍스트로 이해한다. 이때 텍스트는 스스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가능성만을 제공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수업에서도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행위’가 중요하다. 읽기 연구에서도 읽기를 독자의 사전지식 Vorwissen과 읽기 목표 Leseziele에 따라 조정되는 ‘독자와 텍스트 간의 상호행위과정 Interaktionsprozess zwischen Leser und Text’으로 본다. 즉 한편으로는 텍스트가 독자에게 언어적이고 텍스트 종류에 특수한 여러 신호들 - 정서법적, 문장론적, 의미론적, 실용적 신호 등 - 을 통해서 정보를 준다. 다른 한편에 있는 독자는 이러한 정보 내지 신호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 경험, 직감 등으로 받아들여서 평가하고 그것들을 서로 연관시켜 자신을 위한 텍스트의 의미를 조성해 가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텍스트 이해의 과정이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텍스트는 독자에게서 스키마 Schema<sup>25)</sup>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을 ‘상향식 bottom-up’이라고 한다. 즉 텍스트에 주어져 있는 정보나 신호들로부터 독자에게 있는 스키마로 진행되는 방향이다. 그렇지만 독자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는 계속해서 읽기 과정을 이끈다. 그래

24) 수용미학적 개념인 ‘Leerstellen’과 ‘Unbestimmtheitsstellen’은 우리나라 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겠지만, 볼프강 이저 Wolfgang Iser의 저서 『독서 행위 Der Akt des Lesens』를 번역한 이유선을 따라 여기서는 ‘빈 자리’와 ‘미정성 자리’로 쓴다.

25) 스키마는 인지심리학적 개념으로 읽기 연구에서는 독자가 텍스트의 이해를 위해 끌어들이는 자신의 배경지식 Hintergrundwissen이나 경험 Erfahrungen 등을 말한다. Vgl. Ehlers 1992, S. 28

서 독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이용해 다음에 올 텍스트의 정보를 추측하고, 그 추측이 자신의 스키마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이해의 방향은 ‘하향식 top-down’이다.

이러한 견해는 모국어 읽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읽기에도 해당된다. 물론 후자가 전자보다 언어적 장애가 훨씬 높다는 차이가 있다. 단어, 문장구조, 문맥의 연관성, 함축적 내용 등을 해명하는데 모국어로 읽을 때보다는 외국어 읽을 때 훨씬 어려운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외국어 독자는 목표언어권의 문화 내지 지역사정에 대한 지식 - 외국어 문학 텍스트의 구조나 장르도 문화에 특수한 스키마라고 할 수 있다 - 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어 읽기의 특징을 고려하여 독자의 세계지식과 선형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읽기 교재의 ‘선행조직자’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4. 맺는 말

읽기 연구에 따르면 읽기란 하나의 문화기술로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잘 ‘훈련된 독자’, 즉 읽기 능력을 갖춘 독자는 그렇지 못한 독자보다 독서에 대한 동기 내지 흥미도 더 많다고 한다.<sup>26)</sup> 다른 매체들 -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등 - 과 힘겨운 경쟁 속에서 점점 쇠퇴해가는 독서 문화와 관련해서 외국어 수업에서도 읽기, 특히 문학 텍스트의 읽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토대 위에서 구성된 문학 수업을 위한 읽기 교재가 요청된다. 교재는 교수자 및 학습자와 함께 수업을 이루는 기본요소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문학 수업을 위한 읽기 교재들이 출간되었으나, 그 교재들이 대부분 학습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한 것 같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재 연구에 대한 학문적 무관심, 즉 문학 교수법 내지 읽기 교수법에 대한 진지한 이론적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26) Vgl. Christmann/Groeben 1999, S. 205



<첨부>

범한 독일문학 시리즈

제1권 Thomas Mann: Tristan / Tonio Kröger

제2권 Adalbert Stifter: Abdias / Brigitta

제3권 Johann Wolfgang von Goethe: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 /  
Novelle

제4권 Franz Kafka: Das Urteil / Die Verwandlung / Ein Landarzt /  
In der Strafkolonie / Beim Bau der Chinesischen Maure /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 Der Jäger Gracchus

제5권 Joseph von Eichendorff: Aus dem Leben eines Taugenichts /  
Das Schloß Dürande

제6권 Heinrich von Kleist: Michael Kohlhaas / Der Zweikampf

제7권 Heinrich Böll: Über die Brücke / Kumpel mit dem langen Haar /  
Der Mann mit den Messern / Steh auf, steh doch auf

제8권 Max Frisch: Homo Faber

제9권 W. Wackenroder / L. Tieck: Herzensergiessungen eines  
kunstliebenden Klosterbruders

제10권 Wolfgang Borchert: Die Hundebume / An diesem Diestag /  
Nachgelassene Erzählungen

제11권 Droste-Hülshoff: Die Judenbuche / Franz Grillparzer: Der arme  
Spielmann

제12권 Stefan Zweig: Brief einer Unbekannten / Vierundzwanzig  
Stunden aus dem Leben einer Frau / Günter Eich: Züge im Nebel /  
Rainer Maria Rilke: Der Bettler und das stolze Fräulein

제13권 A.v. Chamisso: Peter Schlemihls wundersame Geschichte /  
L. Tieck: Der blonde Eckbert

제14권 E.T.A. Hoffmann: Rat Krespel / Don Juan / Der goldne Topf

제15권 G. Keller: Der Landvogt von Greifensee / Sieben Legenden

제16권 Theodor Fontane: Irrungen Wirrungen

제17권 J.W. Goethe: Faust Der Tragödie erster Teil

- 제18권 Max Frisch: Andorra / Biedermann und die Brandstifter  
제19권 Friedrich Dürrenmatt: Der Besuch der alten Dame /  
Die Physiker  
제20권 Friedrich Schiller: Wilhelm Tell  
제21권 Georg Büchner: Der Hessische Landbote / Dantons Tod  
제22권 Gerhart Hauptmann: Vor Sonnenaufgang / Bahnwärter Thiel  
제23권 Friedrich Hebbel: Judith / Maria Magdalena  
제24권 G.E. Lessing: Minna von Barnhelm / Ausgewählte Prosa  
제25권 Hermann Hesse: Augustus / Eine Fußreise im Herbst  
제26권 Arthur Schnitzler: Die Toten Schweigen / Der blinde Geronimo  
und sein Bruder / Die Frau des Weisen  
제27권 Friedrich Hölderlin: Hyperion  
제28권 Joseph Roth: Zipper und sein Vater

범우 독일문학 주해시리즈

- 제1권 F. Kafka: Der Prozeß  
제2권 H. Hesse: Demian  
제3권 G. Hauptmann: Bahnwärter Thiel 외  
제4권 Th. Storm: Immensee 외  
제5권 A. Schnitzler: Die Fremde 외  
제6권 G. Keller: Kleider machen Leute 외  
제7권 G. Büchner: Woyzeck 외  
제8권 J.W.v. Goethe: Hermann und Dorothea 외  
제9권 J.W.v. Goethe: Faust I  
제10권 Th. Mann: Tonio Kröger 외  
제11권 M. Frisch: Homo Faber  
제12권 F. Dürrenmatt: Romulus der Große 외  
제13권 G. Eich: Vier Hörspiele  
제14권 H. Böll: Wo warst du, Adam?  
제15권 J.W.v. Goethe: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

삼영 독일문학 주해시리즈

- 제1권 G.E. Lessing: Emilia Galotti 외
- 제2권 J.W.v. Goethe: Torquato Tasso 외
- 제3권 L. Tieck: Die Märchen aus dem Phantastus
- 제4권 F. Hölderlin: Hyperion oder der Eremit in Griechenland
- 제5권 Droste-Hülshoff: Die Judenbuche 외
- 제6권 C.F. Meyer: Der Heilige
- 제7권 G. Hauptmann: Vor Sonnenaufgang 외
- 제8권 H. Böll: Und sagt kein einziges Wort
- 제9권 F. Dürrenmatt: Romulus der Große 외
- 제10권 S. Lenz: Ausgewählte Erzählungen
- 제11권 J.M.R. Lenz: Der Hofmeister und die Soldaten
- 제12권 F. Schiller: Wilhelm Tell 외
- 제13권 H.v. Kleist: Erzählungen
- 제14권 F. Grillparzer: Der arme Spielmann und Sappho
- 제15권 G. Büchner: Dantons Tod / Woyzeck
- 제16권 J.W.v. Goethe: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
- 제17권 F. Kafka: Die Verwandlung / Andere Erzählungen
- 제18권 Th. Mann: Tonio Kröger / Andere Erzählungen
- 제19권 H. Hesse: Der Steppenwolf
- 제20권 Botho Strauß: Trilogie der Wiedersehen 외
- 제21권 Deutsche Erzählungen

독어학습문고 독한대역 명작소설

- 제1권 P. Heyse: Hochzeit auf Capri
- 제2권 A. Schnitzler: Die Frau des Weisen
- 제3권 R. Volkmann-Leander: Die Wunsching 외
- 제4권 A. Schnitzler: Der Blinde Geronimo und sein Bruder
- 제5권 P. Heyse: L' Arrabbiata

### 참 고 문 헌

- 송휘재: 외국어 문학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읽기 교수법적 전략. In: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11 (2002). S. 243-272.
- 송휘재: 독자의 행위 지향적인 외국어 문학수업. In: 독일어문학 11:3 (2003). S. 481-501.
- 이저, 볼프강: 독서행위 (Orig.: Der Akt des Lesens. Theorie ästhetischer Wirkung. 이유선 역). 서울 1993.
- Ballstaedt, Steffen-Peter u.a.: Texte verstehen, Texte gestalten. München u.a. 1981.
- Benz, Norbert: Der Schüler als Leser im fremdsprachlichen Literaturunterricht. Tübingen 1990.
- Christmann, Ursula/Groeben, Norbert: Psychologie des Lesens. In: Franzmann, Bodo u.a. (Hrsg.): Handbuch Lesen. München 1999. S. 145-223.
- Ehlers, Swantje: Literarische Texte lesen lernen. München 1992.
- Esselborn, Karl: Literaturdidaktik im Bereich Deutsch als Fremdsprach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Ehnert, Rolf/Schröder, Hartmut (Hrsg.): Das Fach Deutsch als Fremdsprache in den deutschsprachigen Ländern. 2., korrigierte Aufl. Frankfurt a.M. u.a. 1994, S. 267-297.
- Glaap, Albert-Reiner: Literaturdidaktik und literarisches Curriculum. In: Bausch, Karl-Richard u.a. (Hrsg.): Handbuch Fremdsprachenunterricht. 3., überarb. und erw. Aufl. Tübingen/Basel 1995. S. 149-156.
- Honnef-Becker, Irmgard: Wie sich Literatur mit Vergnügen lesen läßt. Bemerkungen zum Umgang mit literarischen Texten in Deutsch als Fremdsprache. In: Info DaF 20:4 (1993). S. 437-448.
- Kosok, Heinz: Lektüreauswahl für die Sekundarstufe II aus der Sicht eines Literaturwissenschaftler. In: Weber, Hans (Hrsg.):

- 
- Aufforderungen zum literaturdidaktischen Dialog. Paderborn u.a. 1979. S. 13-29.
- Löschmann, Martin/Schröder, Gisela: Literarische Texte im Fremdsprachenunterricht. Leipzig 1984.
- Nebe, Ursula: Zur Progression von allgemeinsprachlichen Lesetexten im studienvorbereitenden Unterricht Deutsch als Fremdsprache. Frankfurt a.M. u.a. 1991.
- Riemer, Claudia: Literarische Texte. In: Henrici, Gert/Riemer, Claudia (Hrsg.): Einführung in die Didaktik des Unterrichts Deutsch als Fremdsprache mit Videobeispielen. 2 Bde. Baltmannsweiler 1995. S. 282-299.
- Schier, Jürgen: Schülerorientierung als Leitprinzip des fremdsprachlichen Literaturunterrichts. Frankfurt a.M. u.a. 1989.
- Weinrich, Harald: Literatur im Fremdsprachenunterricht - ja, aber mit Phantasie. In: Die Neueren Sprachen 82:3 (1983). S. 200-216.
- Westhoff, Gerard: Fertigkeit Lesen. Berlin u.a. 1997.
- Wolff, Dieter: Lehrbuchtexte und Verstehensprozesse in einer zweiten Sprache. In: Neusprachliche Mitteilungen aus Wissenschaft und Praxis 37:1 (1984). S. 4-11.